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창 수

2016년 8월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관 훈

김 창 수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김창수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년 6월

Research on donation awareness of the Jeju public official

Chang soo,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in Gwan H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0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3
1. 공직자와 기부에 대한 논의	3
2. 기부행위 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	6
3. 선행연구 고찰	8
III. 연구 방법	13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3
2. 측정도구	13
3. 자료 분석방법	15
IV. 연구결과	16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6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22
V. 결론 및 제언	31
1. 연구결과 요약	31
2. 제언	33
참고문헌	35
부록	37
Abstract	43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14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
<표 3> 기부인식	17
<표 4> 기부를 하게 되는 이유	18
<표 5> 기부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19
<표 6> 금전기부 이외 선호하는 기부방식	20
<표 7> 선호하는 기부대상	20
<표 8> 기부상식의 선호이유	21
<표 9> 기부활동 확대 방안	21
<표 10> 성별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2
<표 11> 기존 기부경험 유무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4
<표 12> 기부활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5
<표 13>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6
<표 14> 연령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28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천원미만의 급여우수리 금액을 모아서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비정기적으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에 관한 인식 정도를 연구하여 공직자 기부 인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서귀포시 행정시, 도 직속기관(자치경찰, 소방), 등 소속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 등 공직자 36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설문에 미기재된 총 31부의 표본을 분석과정에서 제외한 최종 설문지 337, 기부 자발성, 기부 경험 유무, 기부활동의 정기성 등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기부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은 318명(94.9%)이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219명(65%), 여성 118명(3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30대(47%), 40대(32.1%),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67명(80.2%),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49.1%)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측정도구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를 요약하면, 기부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중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30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자발적 기부(M=3.47)보다 자발적 기부(M=3.50)가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5.357, 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기부활동의 비정기성(M=3.17)보다 정기성(M=3.66)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부동기에 있어서는 '딱한 사정을 접하면 돕고 싶어져서'(M=3.85) 등이 평균값이 높게 분포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부 활동과 자발적인 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시간적·재정적 지원 등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처럼 제주지역 공직자 기부 인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과 관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스포츠선수의 메달, 서민들의 패물과 자녀들의 돌 반지가 나라를 위해 모아졌다. 이렇게 모인 기부품 등이 당시 단기간 외환 보유고 증가를 가져왔고 국민적 결집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3여년 만에 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빚을 다 갚아 최단기간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극적인 기부활동으로 해외 각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구호와 관련하여 기부 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피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부 동참을 제안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는 자산 대부분을 자선 재단 설립에 사용했고 공익 재단을 통한 질병 퇴치 등의 사업을 지원했고 워런 버핏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약속 후 현재까지 29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 돈으로 52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데일리한국, 2016.01.03.일자).

이처럼 기부는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나 집단, 정부 등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는데 일조한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평균 70.1% 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3.5%),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5.2%), 기부단체 등 불신(10.6%),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7.1%), 기부 방법을 몰라서(3.5%), 기타(0.2%) 순으로 집계되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65%가 기부한 적 없음으로 집계되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일수록 기부 참여가 높았으며 기부 참여는 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유니세프, 대한적십자 등의 모금단체, ② 직장, ③ 종교단체, ④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순 등으로 기부참여가 이루어졌다.

기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여유가 없어서’가 66.8%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¹⁾.

모범적 기부인식과 기부활동이 요구되는 제주지역 공직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직자들은 2012년부터 천원미만의 급여우수리를 모아서 4년 동안 1억 원을 모아 주로 도내 복지시설(노숙자관리, 아동복지, 노인복지), 읍면동 불우이웃(복지사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장애인, 위탁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서 작은 행복 나눔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경인투데이뉴스, 2016.06.08.일자).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공직자 기부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연구된 자료를 접할 수 없어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공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부자발성, 기부 정기성 등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매월 직장 급여에서 발생하는 천원미만의 급여우수리 금액을 정기적인 기부와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의 부정기적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2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기부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공직자 기부 인식 향상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로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의 기부인식, 기부경험 여부, 기부활동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부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기부활동의 자발성 유무에 따른 기부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기부활동의 정기성 유무에 따른 기부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사회조사: 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사회조사 : 기부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 기부활동 (참여여부)

II. 이론적 배경

1. 공직자와 기부에 대한 논의

1) 공직자의 정의

공직자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등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직(公職)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하며, ‘공직자’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 한다. 그리고, ‘공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를 말한다(위키백과).

법규상 정의를 살펴보면,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각호에 명시되어 있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999년에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및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2조 신고의무자에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의무자와 동등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개념 보다 앞서 법규에 명시된 공무원은 194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론적 정의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개념이 객관적인 공무 수행자라는 의미를 띠는 반면, 공직자의 개념은 공무 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더 강조된 개념으로 공직(公職)의 개념은 공무와 관직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권한이 부여된 자리'라고 정의한다(윤건수, 2011 재인용).

직업공무원제의 정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 하는 인사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공

무원과 공직자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박천오 2007 재인용).

공무원의 개념과 공직자의 개념은 각기 다른 목적과 가치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개념과 공직자의 개념을 혼용하지 않고 보다 명확한 구분을 통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개념은 직업으로서 해당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직자의 개념은 사람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이민호 외, 2012).

2) 기부의 정의 및 유형

기부의 사전적 정의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을 뜻한다(국립국어원).

여기서 ‘대가가 없음’은 기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 개선 등의 반대급부는 포함할 수 있다. 즉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기 만족 및 사회적 체면, 기업의 이미지 개선, 마케팅 효과 및 장기적 가치창출 등 ‘비금전적’ 이면서 간접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한다(허은영, 2009).

법규상 정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법인기부금은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개인기부금은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론적 정의를 살펴보면, 기부란 자신이 가진 돈이나 물품, 능력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의 충족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이타주의 실천을 위하여 어려운 개인이나 이웃을 위해 선행의 돈이나 물품 및 능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부란 공공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개인,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이며, 사회적 투자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의는 기부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 변혁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의 두 정의는 목적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무상의 의미와 이타주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창식 외, 2013).

기부 유형에는 물질적(현금, 물품) 기부,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 인체기증 및 헌혈 등이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재능 기부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재능’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의 목적을 넘어,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물질적 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자의 시간과 재물을 제공하는 행동이며 신체와 관련한 인체기증 및 헌혈 또한 기부영역으로 포함한다. 인체기증이란 장기나 조직 등을 다른 환자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체기증은 사망 후 기증과 생존시 기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세범, 2013).

물품 기부는 인간의 소비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직면하게 되었고,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는 자원낭용 및 폐기물을 줄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물품기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나바다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가 탄생하였다(김영연, 2015).

이처럼 기부활동은 사람들을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결속을 유지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기부 중 현금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부행위 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항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제로 시작한다. 제한된 수입으로 자신의 효용을 높이거나 교환관계가 아닌 타인을 위해 지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평생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부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 되어왔다. 기부행위의 동기는 직접적인 편익이라고도 하고, 이타적인 이유라고도 하고, 명성과 지위 획득과 같은 사회적 이유라고도 한다. 또는 자

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기 정체성의 동기라고도 한다. 동기를 이타성과 이기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타성,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는 행위로부터의 보상 등으로 해석되면 이기적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Lsekovec, Darja, 57 참조 재인용).

그리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또는 제3자가 지켜볼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lpizar, 2013 재인용). 이와 같이 사람들은 불순한 이타성으로 기부를 하고, 그러므로 개인적 욕구(효용성)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기부를 유인하는 법제가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제혜택이 기부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조성혜, 2014).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기부행위를 친사회적 행위로 본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촉진시키거나 유지하는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은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학자마다 자신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타행동과 구별하며,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타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순남(199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친사회적 행동 경험은 다른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부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행동이 나아가 사회전체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상호작용이론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습되고 습득되어 질수 있다고 한다.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가까이서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기부행동은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기부행동 자체만으로 자녀들의 모델이 되고 자녀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손진석, 2007).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물들, 그리고 다른 조직들에 자신을 통합 시켜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Allport(1937)은 자기 확장을 개인의 성숙의 일부분으로 보았으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생

각할 수 있는 후기 청소년기(대략19~22세)가 되어서야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성숙된 삶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자신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기 확장의 과정은 소유물, 친구, 가족, 관심사, 관념, 정치, 오락, 직업을 포함시켜 나간다. 내 아내, 내 친구, 나의 학교 등 소유의 용어로 이야기 한다(김유나 2002 재인용).

Belk(1988)는 자기 확장이 다른 사람들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집단, 국가, 하위 문화, 그리고 개인이 동일시 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기부행동은 확장된 자아를 대표하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지 된다고 하였다(오해진, 2003 재인용).

확장된 자아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이기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확장에서 인간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이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근원적인 가치체계의 표현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보면, 기부는 인간의 가치의 확장이고 사회적 기관들에 대한 기부자의 자기 확장의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김지옥, 2008).

경제학적 접근에서 Friedman(1957)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에 걸친 소비지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현재의 소득, 앞으로 그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 이자율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지선, 2005 재인용). 항상 소득은 일정비율은 소비되며, 변동소득은 저축으로 돌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항상 소득의 비율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고 저축성향은 낮아진다는 이론이다(손진석, 2007).

3. 선행연구 고찰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서 살펴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기부자의 기부금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황창순, 2001 재인용)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성들의 기부비율 및 기부금액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창순 외, 2002).

하지만, 근래 성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선적인 경향이 있고 보다 이타주의적 또는 친사회적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성이 기부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결과들은 기부의 정기성에 있어서도 여성의 적극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강철희 외, 2007).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자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은영, 2009).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기여도와 전혀 무관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연령과 기부활동은 관련성이 높다는 보고가 일반적이다. Feldstein과 Clotfelrer(1976, 1980)은 나이가 많을수록 기부활동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일관되게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Sewell Jr.(1988)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이나 장년층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기부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Jenks(1987)는 사람들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강철희 외, 2007).

우리나라에서 연령과 개인의 기부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없으며 후원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을 측정하여 어느 나이 집단이 후원활동에 더욱 적극적인가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30대와 40대 중심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부의 정기성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정수영, 2005)에서 연령은 기부의 정기성과 부적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노령 연령층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조사 및 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령은 기부의 정기성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향성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강철희 외, 2007).

교육수준도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미국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교육수준이 기부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한다(Morgan, Dye, and Hybels, 1977 재인용).

국내의 연구들도 기부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서 교육수준과 개인기부 사이의 관계를 정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내의 연구들(한국복지재단 1997 재인용)에서는 일관되게 전체 기부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준다. 유수진(2001)도 학력이 낮은 사람이 대졸인 사람보다 기부할 확률이 더 낮다고 제시하며 그 관계가 정적임을 밝히고 있다(황창순 외, 2002).

그리고 기부참여와 관련된 Independent Sector(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고졸 미만인 가구의 68%가 기부를 하는 반면, 고졸인 가구는 86%가 대졸인 가구는 95%가 기부를 한다고 보고하면서 교육수준이 기부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기부의 정기성의 효과를 조사한 정수영은(2005) 교육수준은 기부의 정기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한다(강철희 외, 2007).

소득수준은 기부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득수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개인소득이 후원노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가구구성원 모두의 소득수준은 기부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고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에서 소득 수준이 기부행위에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에서처럼 연구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김영연, 2016)

혼인 유무는 미혼보다 기혼이 더 높은 참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철희(1998)는 기부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혼인유무 외에도 가족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이 전국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인 약 75% 이상이 기혼자였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이은화, 2011) 강철희·주명관(2007)의 연구에서는 기혼은 미혼 및 이혼 등의 다른 결혼 상태에 비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상태 안정성이 갖는 기부참여에의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부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자원 확보를 위해 개인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이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적 승화, 기부를 통한 삶의 에너지 획득 등 개인적 동기가 기부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체면이나 집단

소속감, 우호적 관계 등의 사회적 동기보다 개인적 동기가 기부만족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만족은 신뢰와 기부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몰입이 만족보다 기부 지속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자면, 개인기부자의 지속적이고 정기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은 만족, 신뢰, 몰입을 통한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고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개인적인 기부동기가 기부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기부만족은 신뢰와 몰입을 통해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세범, 2013).

그리고 개인기부자들의 기부기관에 대한 관계지속성에 관한 연구로서 개인기부자들의 기존경험만족과 일체성, 친밀도가 관계의 질과 기부 의도 및 충성도를 변수로 한 연구가 있으며(김준희, 2011) 기부자들이 규범적 상호 호혜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할수록 기부할 의향이 더 높아지고 상호 호혜적 동기가 기부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의 연구가 있다(김영옥·김찬아, 2005).

잠재 고액기부자들의 현황, 욕구, 태도, 분석, 등을 통한 고액기부 확대를 위해 실증적 이해 구축과 발굴전략을 모색한 연구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기부서클의 접근을 통한 결속력, 헌신도 증대, 공식화, 제도화된 고액기부 프로그램 필요, 조직화 및 혜택 전략의 균형, 고액기부 실무부서 리더십강화, 잠재 기부자들의 특화전략 필요성, Challenge Grant의 활용가능성, 기부자를 핵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강철희, 2006)가 있고 기부에 대한 삶의 철학·동기·실천의 경험을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면담 방법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대한 보은, 경제적 안정감, 공감과 감정이입, 기부처를 찾아 헤매임, 책임성과 투명성 신뢰, 기쁨, 만족감, 다시 기부하고픈 등과 같은 연구 결과(구지윤, 2005)와 어떤 기부동기들이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지에 관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성적 기부동기가 기부행동에 중요하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기관의 성과를 설명하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고 개인기부자의 과거기부에 대한 만족이 기부행위의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김주원, 2005)도 있다. 한편 기부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점과 특성을 연구하고 기부문화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는(유수진, 2000) 종교가 없는 경우,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태도 요인은 기부경험, 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ARS기부의

경우, 세금공제·자동이체 등 기부방식의 전환모색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²⁾.

다음으로 지역에 한정된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도내 거주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기부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성별,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영숙, 2013)와 제주지역의 기부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민간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부지속성 유지 및 확대방안을 제안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영숙, 2015)가 있다.

기존 기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제주지역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기부 인식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도내 거주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기부 인식 관련 자료수집과 이를 토대로 기부자의 감정 및 기부에 대한 정서, 기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여 모범적 기부인식과 기부활동이 요구되는 제주지역 공직자에 대한 기부 인식의 미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서영숙(2013) “제주지역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고찰을 따랐다. pp. 219~221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제주지역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기부활동과 기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청 소속 공직자 84명, 제주시 소속 공직자 15명, 서귀포시 소속 공직자 73명,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공직자(서귀포지역경찰대 포함) 122명, 제주소방서 소속 공직자(서귀포 포함) 74명 등 총368명으로 직렬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 기간제 등이 포함되어 공무원 신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같은 조직 내 비공무원과 함께 20대 이상의 남녀 공직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9부터 5월 27일까지 약20일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 배포를 통해 자기보고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 하였고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은 연구자가 모집단의 특성을 임의대로 추출하는 방법인 비확률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고 이와 같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자로부터 취지와 내용 및 조사방법 등을 교양 받은 조사요원 19명이 해당 소속 공직자들에게 설문 목적과 필요성, 설문참여방식에 대해 직접설명하며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희망자에 한하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응답자 1명당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는 총 400부 중 36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에 불성실하거나 설문에 미기재 된 총 31부의 표본을 분석과정에서 제외한 최종 설문지 337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월 소득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는 혼인과 미혼 그리고 이혼 등을 추가 하였다. 월 소득은 100만원 이상 부터 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 부터 300만원미만, 300만 원 이

상 부터 4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에 있어서 ‘매우 아니다’는 1점, ‘대체로 아니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1) 기부인식 척도

서영숙(2015), EZ서베이on-line조사(2013)에서 사용했던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는 0.605로 나타났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자녀수, 월 소득,	6
기부경험유무	기부 동의 의사표시 등으로 천원미만의 급여 우수리 금액을 기부하는 형식의 기부활동 하고 있나요	1
기부 자발성	귀하의 기부활동은 자발적인 것 인가요	1
기부 정기성	귀하의 기부활동은 정기적인 것 인가요	1
기부에 대한 인식	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1
	기부 동기	7
	기부하지 않았던 이유	9
	선호 기부 형태,	4
	선호 기부 대상	5
	기부 정기성 선호이유	5
	기부활동 확대 방안	6
전체		56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20.0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 중 표기를 잘못했거나 누락되는 듯 불성실한 답변된 것은 사례에서 제외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부인식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변수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여성	118	35.0	자녀수	1명	54	18.1
	남성	219	65.0		2명	119	39.9
	합계	337	100.0		3명	38	12.8
			4명이상		2	0.7	
연령	20대	25	7.6	없음	85	28.5	
	30대	155	47.0		합계	298	100.0
	40대	106	32.1	월소득	100-199만원	71	21.4
	50대	44	13.3		200-299만원	163	49.1
	합계	330	100.0		300-399만원	75	22.6
학력	고졸	30	9.0	400만원이상	23	6.9	
	대졸	267	80.2		합계	331	100.0
	대학원졸 이상	23	6.9	기부경험 유무	있다	318	94.9
	기타	13	3.9		없다	17	5.1
	합계	333	100.0		합계	337	100.1
결혼 여부	미혼	87	26.5	기부의 자발성 여부	자발적 기부	189	59.4
	기혼	237	72.3		비자발적 기부	129	40.6
	사별	2	.6		합계	318	100.0
	이혼	1	.3	정기적 기부활동 여부	정기적 기부	170	54.0
	사실혼	1	.3		비정기적 기부	145	46.0
	합계	328	100.0		합계	315	100.0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118명(35.0%), 남성 219명(65.0%)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은 20대 25명(7.6%), 30대 155명(47.0%), 40대 106명(32.1%), 50대 44명

(13.3%)으로 30대와 40대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267명(8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졸 30명(9.0%), 대학원졸 이상 23명(6.9%)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237명(72.3), 미혼 87명(26.5%)으로 대부분이 기혼이었다. 자녀수는 2명 119명(39.9%), 없음 85명(28.5%), 1명 54명(18.1%), 3명 38명(12.8%)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을 살펴보면, 200~299만원 163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 75명(22.6%), 100~199만원 71명(21.4%), 400만 원 이상 23명(6.9%)순으로 분포되었다.

기부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은 있다 318명(94.9%)으로 대부분이 기부에 대한 경험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 수령 시 공직자 대부분이 급여우수리 기부활동 등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부의 자발성 여부에서는 자발적 기부 189명(59.4%), 비자발적 기부 129명(40.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자발적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정기적 기부활동 여부에서는 정기적 기부 170명(54.0%), 비정기적 기부 145명(46.0%)으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급여우수리 기부 이외에도 연말연시 단체기부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공직자가 46%에 해당된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인 기부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부 인식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334	1	5	3.40	.856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335	1	5	3.29	.958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334	1	5	3.81	.848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333	1	5	3.23	.983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335	1	5	3.44	1.194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336	1	5	3.59	.942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332	1	5	3.59	.890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 한다.	333	1	5	2.79	.928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뉘야 한다.	334	1	5	3.24	.929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334	1	5	2.15	.910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334	1	5	2.99	1.003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M=3.59)고 인식하면서도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M=3.59),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M=3.44) 문항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았고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M=3.81),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고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은 가장 낮게 나와 제주지역의 공직자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부를 하게 되는 이유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333	1	5	3.19	.923
회사 분위기나 남들이 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333	1	5	2.52	.887
딱한 사정을 접하면 돕고 싶어져서	335	1	5	3.85	.753
어려울수록 나눔을 실천해야할 것 같아서	332	1	5	3.74	.757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가 기부하는 단체를 선호해서	333	1	5	2.41	.912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 싶어서	333	1	5	2.91	.954
봉사활동 등 체험을 통한 깨달음으로	333	1	5	3.26	.869

‘딱한 사정을 접하면 돕고 싶어져서’(M=3.85), ‘어려울수록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 같아서’(M=3.74)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내가 기부하는 단체를 선호해서’(M=2.41), ‘회사 분위기가 남들이 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M=2.52), 문항에서 낮게 분포되어 의도하지 않은 기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부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현재 기부활동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05	1	5	3.20	.967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303	1	5	3.34	1.030
기부매개체(단체, 조직)를 신뢰할 수 없어서	303	1	74	3.63	4.169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싫어서	302	1	5	2.76	.987
기부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못 느껴서	302	1	5	2.62	.907
기부활동 참여 방법을 몰라서	302	1	5	2.67	.942
기부는 부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301	1	5	2.46	.932
가진자들이 대체로 기부를 하지 않아서	301	1	5	2.68	1.048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생각이 없다.	302	1	5	2.53	.939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M=3.34), ‘기부매개체(단체, 조직)

를 신뢰할 수 없어서'(M=3.63)문항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생각이 없다'(M=2.53)문항에서는 낮게 나타나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기부에 관심이 없다가보다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거나 기부금의 사용 출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금전적 기부 이외 선호하는 기부방식은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금전적 기부 이외 선호하는 기부방식으로는 재능기부(M=3.64), 봉사활동(M=3.54), 물품기부(M=3.53)순으로 금전적 기부 이외 재능기부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금전적 기부 이외 선호하는 기부형태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옷, 음식, 가전제품 등 물품기부	322	1	5	3.53	.879
일정한 노동력을 통한 봉사활동	321	1	5	3.54	.894
자신의 전문분야 제공하는 재능기부	323	1	5	3.64	.943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기부대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국내 주변 불우이웃 개인 등 비공식적인 곳(M=3.57), 국내 일반사회복지 재단인 아름다운 재단 등(M=3.32), 해외구호활동 중심의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M=3.13)의 순으로 나타나 주변에 대한 기부대상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선호하는 기부대상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내 주변 불우이웃 개인 등 비공식적인 곳	322	1	5	3.57	.962
해외구호활동 중심의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319	1	5	3.13	.978
국내 종교관련 복지단체 구세군 등	319	1	5	2.64	.977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네이버 해피빈 등	317	1	5	2.73	.862
국내 일반사회복지 재단인 아름다운 재단 등	323	1	5	3.32	.936

이와 같은 기부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잊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M=3.73),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M=3.50), ‘기부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M=3.45) 문항 순으로 ‘잊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지속성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표 8> 기부 정기성 선호이유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잊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28	1	5	3.73	.833
기부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321	1	5	3.45	.785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323	1	5	3.50	.790
기부를 하고 싶은 기간에만 하고 있다.	321	1	5	2.98	.932

기부활동 확대 인식은 <표 9>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기부활동 확대에 관한 인식에서는 ‘학교에서부터 기부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M=3.84), ‘기부인식관련 언론을 통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M=3.76),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필요’(M=3.60)문항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지역 공직자가 경험한 기부관련 교육과 기부캠페인 홍보 등이 부족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9> 기부활동 확대 방안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복지시설 의무적 봉사활동 정책상 필요하다.	331	1	5	3.08	1.073
비자발적 기부라 할지라도 회사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	332	1	5	3.01	1.016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	331	1	5	3.60	.901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부자에 대한 우대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331	1	5	3.38	.972
기부인식관련 언론을 통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330	1	5	3.76	.823
학교에서부터 기부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332	1	5	3.84	.83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p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여자	118	3.41	.787	.088
	남자	216	3.40	.894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여자	118	3.18	.883	-1.533
	남자	217	3.35	.993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여자	118	3.80	.780	-.187
	남자	216	3.81	.886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여자	116	3.30	.925	.998
	남자	217	3.19	1.012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여자	118	3.40	1.087	-.423
	남자	217	3.46	1.251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여자	118	3.76	.844	2.545*
	남자	218	3.49	.980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자	117	3.52	.750	-1.042
	남자	215	3.63	.95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p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 이라 기대 한다.	여자	118	2.82	.833	.513
	남자	215	2.77	.977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	여자	118	3.36	.834	2.078*
	남자	216	3.18	.972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자	118	2.19	.889	.715
	남자	216	2.12	.922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여자	118	2.81	.918	-2.442*
	남자	216	3.08	1.035	

*p<.05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545,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남자(M=3.49)보다 여자(M=3.76)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t=2.07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M=3.18)보다 여자(M=3.36)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t=-2.442,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M=2.81)보다 남자(M=3.08)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기부인식 등에서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공직자들에서도 선행연구에서처럼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적극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2) 우수리 기부 이외 기존 기부경험 유무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천원미만의 우수리 기부활동에 이전에 기부경험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기부경험 유무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표 11> 기존 기부경험 유무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p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있다	316	3.43	.846	2.854**
	없다	16	2.81	.911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있다	316	3.26	.954	-1.876*
	없다	17	3.71	.985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있다	315	3.80	.844	-.096
	없다	17	3.82	.951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있다	314	3.24	.983	.721
	없다	17	3.06	1.029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있다	316	3.46	1.180	1.357
	없다	17	3.06	1.435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있다	317	3.62	.936	1.880*
	없다	17	3.18	.951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있다	313	3.57	.893	-1.681
	없다	17	3.94	.827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 한다.	있다	314	2.80	.936	.770
	없다	17	2.65	.786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뉘야 한다.	있다	315	3.26	.928	1.635
	없다	17	2.88	.928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있다	315	2.13	.913	-1.296
	없다	17	2.41	.870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있다	315	3.00	.998	1.357
	없다	17	2.65	1.057	

*p<.05, **p<.01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2.854, p<.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기부경험이 없다(M=2.81)보다 있다(M=3.43)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t=-1.876,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부경험이 있다(M=3.26)보다 없다(M=3.71)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1.880,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경험이 없다(M=3.18)보다 있다(M=3.62)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 특성 요인의 경우, 기부의 정기성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기부 사회화 경험은 이후 기부활동에서

참여 및 지속성 등으로 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외, 2007)

3) 기부활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기부활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기부활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p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자발	188	3.68	.798	6.788***
	비자발	130	3.06	.785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자발	188	3.11	.921	-3.460**
	비자발	131	3.47	.963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자발	187	3.78	.874	-.590
	비자발	131	3.83	.815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자발	186	3.29	1.046	1.226
	비자발	131	3.15	.890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자발	188	3.51	1.135	.844
	비자발	131	3.40	1.251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자발	189	3.71	.890	2.308*
	비자발	131	3.47	.979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들어는 것은 당연하다.	자발	186	3.50	.884	-2.102*
	비자발	130	3.68	.881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 라 기대 한다.	자발	186	2.84	.902	-1.988*
	비자발	131	2.73	.977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	자발	187	3.41	.931	1.116
	비자발	131	3.04	.881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자발	187	1.99	.826	3.600***
	비자발	131	2.34	.981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자발	187	2.84	1.045	-3.637***
	비자발	131	3.24	.869	

*p<.05, **p<.01, ***p<.001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6.788,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기부활동이 비자발성(M=3.06)보다 자발성(M=3.68)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t=-3.460, p<.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부활동이 자발성(M=3.11)보다 비자발성(M=3.47)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30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활동 비자발성(M=3.47)보다 자발성(M=3.50)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 한다.’(t=-1.98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부활동이 비자발성(M=2.73)보다 자발성(M=2.84)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t=3.600,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활동 자발성(M=1.99)보다 비자발성(M=2.34)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t=-3.637,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부활동 자발성(M=2.84)보다 비자발성(M=3.24)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기부활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p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정기	169	3.66	.795	5.357***
	비정기	143	3.17	.813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정기	169	3.14	.978	-2.536*
	비정기	144	3.41	.872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정기	168	3.86	.871	1.252
	비정기	144	3.74	.82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p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정기	169	3.21	1.024	-.943
	비정기	142	3.32	.894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정기	169	3.51	1.166	1.002
	비정기	144	3.38	1.194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정기	169	3.74	.895	2.549*
	비정기	145	3.48	.936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기	168	3.55	.874	-.087
	비정기	142	3.56	.887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 한다.	정기	167	2.87	.939	1.643
	비정기	144	2.70	.909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	정기	168	3.32	.968	1.137
	비정기	144	3.20	.882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정기	168	2.00	.855	-2.796**
	비정기	144	2.28	.944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정기	168	2.92	1.063	-1.358
	비정기	144	3.07	.898	

*p<.05, **p<.01, ***p<.001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5.357,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기부활동의 비정기성(M=3.17)보다 정기성(M=3.66)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t=-2.536,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부활동의 정기성(M=3.14)보다 비정기성(M=3.41)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549,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활동의 비정기성(M=3.48)보다 정기성(M=3.74)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t=-2.796, p<.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활동의 정기성(M=2.00)보다 비정기성(M=2.28)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 결혼상태가 기부의 정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경험, 이기적 동기, 나눔의 가치 인식 등이 기부의

정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강철희 외, 2007)

5)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연령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p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20대	25	3.12	.666	7.102***
	30대	153	3.29	.817	
	40대	106	3.48	.819	
	50대	43	3.88	.956	
	합계	327	3.42	.850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	20대	25	3.32	.802	2.898*
	30대	154	3.44	.907	
	40대	106	3.11	1.017	
	50대	43	3.12	1.005	
	합계	328	3.28	.958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20대	25	3.96	.611	2.687*
	30대	154	3.80	.795	
	40대	106	3.68	.931	
	50대	42	4.07	.894	
	합계	327	3.81	.849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20대	24	2.96	.999	.741
	30대	153	3.27	.868	
	40대	106	3.21	1.075	
	50대	43	3.19	1.139	
	합계	326	3.22	.985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20대	25	3.00	1.155	2.166
	30대	154	3.47	1.144	
	40대	106	3.58	1.195	
	50대	43	3.21	1.337	
	합계	328	3.43	1.194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20대	25	3.68	.748	5.574**
	30대	154	3.39	.938	
	40대	106	3.76	.911	
	50대	44	3.91	.936	
	합계	329	3.60	.935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p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20대	24	3.67	.702	.259
	30대	153	3.54	.881	
	40대	105	3.58	.841	
	50대	43	3.65	1.089	
	합계	325	3.58	.884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 한다.	20대	24	2.92	.717	.168
	30대	154	2.81	.941	
	40대	105	2.77	.880	
	50대	43	2.79	1.081	
	합계	326	2.80	.924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	20대	25	3.00	.645	11.354****
	30대	154	3.06	.898	
	40대	105	3.38	.881	
	50대	43	3.88	.851	
	합계	327	3.27	.911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20대	25	2.04	.539	2.265
	30대	154	2.27	.922	
	40대	105	2.05	.913	
	50대	43	1.93	.936	
	합계	327	2.13	.903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20대	25	2.76	1.012	.572
	30대	154	2.95	.913	
	40대	105	3.00	1.019	
	50대	43	3.07	1.183	
	합계	327	2.97	.992	

*p<.05, **p<.01, ***p<.001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7.102,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대(M=3.12), 30대(M=3.29), 40대(M=3.48)보다 50대(M=3.88)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t=2.89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대(M=3.32), 40대(M=3.11), 50대(M=3.12)보다 30대(M=3.44)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t=2.687,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M=3.96), 30대(M=3.80), 40대(M=3.68)보다 50대(M=4.07)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5.574,

p<.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대(M=3.68), 3대(M=3.39), 40대(M=3.76)보다 50대(M=3.91)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t=11.354,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대(M=3.00), 3대(M=3.36), 40대(M=3.38)보다 50대(M=3.88)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기부에 관한 최근 연구(장은영, 2009)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기부경험이나 기부의 수준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혹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그들의 삶에서 보다 더 관대해 왔기 때문에 혹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그들의 삶에서 보다 더 관대해 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제주지역 공직자 기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미시적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공직자 기부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본 연구는 급여 수령시 매월 정기적인 우수리 기부나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 부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서귀포시청, 일부 읍면동, 직속기관(자치경찰, 소방) 등 소속 공직자 2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5월 9부터 5월 27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비확률 표집방법을 활용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20.0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한 뒤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빈도분석, t-검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219명(65%), 여성 118명(35%)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30대(47%), 40대(32.1%), 50대(13.3%), 20대 25명(7.6%) 순 이었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67명(8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237명(72.3%) 미혼 87명(26.5%),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49.1%)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기부의 자발성여부에 있어서는 자발적 기부 참여가 189명(58.9%) 비자발적 기부 참여가 132명(41.1%)으로 나타났으며,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있어서는 정기적 기부 참여가 170명(54%) 비정기적 참여가 145명(46%)으로 집계 되었다.

특히 성별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545, p<.05) 문항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남자(M=3.49)보다 여자(M=3.76)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부인식을 묻는 11문항 중 .여성이 6문항 남성이 5문항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여성이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기부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기부동기에 있어 동정심은 남성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정심 변수가 여성의 기부금액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여성의 기부동기에 있어 동정심이 남성에 비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지윤, 2009).

연령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7.102,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대(M=3.12), 30대(M=3.29), 40대(M=3.48)보다 50대(M=3.88)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Clotfelter(1976)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득, 재산, 교육 등의 연령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면 대상자의 연령이 한 살씩 높아질 때, 기부금의 규모가 1%씩 많아진다고 한다(강철희, 1998 재인용). 이 밖에도 연령이 많아지면 더욱 이타심이 많아지고 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연령과 기부의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장은영, 2009).

둘째, 기부경험 유무에 따른 기부인식의 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에서는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1.880,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경험이 없다(M=3.18)보다 있다(M=3.62)가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강철희(2003)연구에서 부모의 기부활동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자선적 기부 참여율이 높으며 본인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부모나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부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이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t=2.308, p<.05)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부활동 비자발성(M=3.47)보다 자발성(M=3.50)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시 비자발적 기부관련 면접을 시도한 결과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우수리 기부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 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었다. 132명(41.1%)이 비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추론된다.

넷째, 기부활동의 정기성 여부에 따른 기부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이다. ‘나는 기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t=5.357, p<.001)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기부활동의 비정기성(M=3.17)보다 정기성(M=3.66)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부의 정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소득 등), 심리적, 어린 시절 경험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여성이 기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결과들은 기부의 정기성에 있어서도 여성의 적극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강철희 외, 2007).

2. 제 언

공직자의 기부에 대한 인식 향상과 관련하여 기부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활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공직자 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처럼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활동과 기부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업무의 과중은 결국 의욕상실과 일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온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회의와 문서생산을 줄이고, 근무 시간 내에서도 공직자의 전문분야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해당부서와 관계없이 지역 주차문제, 제주관광 서비스제공, 행정적인 재정적 인적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과 행정기관 등이 보증하는 물질 기부품에 대한 활용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기적인 기부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정기적 기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 단순히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담사례 발굴 홍보, 기부 칭찬 릴레이 캠페인, 모범자 적극 포상과 기부에 따른 포인트제 등을 실시하여 일정 포인트 점수에 따른 연가산정이나 인사에 가점요인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기적 기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부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제공자에게 재

기부되어 순환 기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질적 기부나 재능기부가 기록이 되어 원하는 제도화된 방법으로 선택 대상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가령 자녀의 유아용품이나 신발, 옷 등의 물품기부가 이루어지면 그 대상에 따른 실적점수가 부여되어 교복이나 도서들로 기부자 본인이 제공 받을 수 있거나 선택한 대상에게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은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 절차 및 매뉴얼 등 예도 적용되어 전임자를 찾아다니며 수고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활동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공직자 기부 인식에 관한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제주지역 공직자 기부활동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정교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공직자에 대한 기부 인식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 토대 마련에 의미를 찾아본다.

참고문헌

- 강철희·구지윤·박소현. (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 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강철희·주명관. (2007). 「기부대상영역에서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2호(2007): 89-137.
-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pp93-122.
- 김세범. (2013).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만족과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문학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 김영연. (2016). 「기부결정요인: 현금 및 물품기부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영옥·김찬아. (2005). 「기부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기부 의도와의 관계: 비영리 PR의 수사학적 접근에 대한 실증 분석」. 홍보학연구 2005년 제9-2호.
- 김지옥. (2008). 「개인기부자의 기부행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 김준희. (2012). 「개인기부자들의 관계의 질과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7호(2012.8).
- 서영숙. (201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대학원.
- 서영숙. (2013). 「제주지역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제 40집 2013. 8. pp 215~245
- 손진석. (2007). 「의료기관 종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민호·김영록·윤수재. (2012). 「공직자 명칭 등에 대한 55.정의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동향·연구보고서
- 이은하. (2011). 「개인의 기부인식과 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 이원준. (2012).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문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민호·김영록·윤수재. (2012). 「공직자 명칭 등에 대한 55.정의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동향·연구보고서
- 장은영. (2009). 「개인기부자의 기부의향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연령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 이민호·김영록·윤수재. (2012). 「공직자 명칭 등에 대한 55.정의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동향·연구보고서
- 황창순·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2호(2002). 33-73.
- 허은영. (2009).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09-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http://daily.hankooki.com/>

<http://www.ktin.net/h/pview.html?idx=1>

부 록

1. 설문자료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인식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제주지역 공직자 기부인식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 공직자의 기부 활동 현 실태, 기부 관련 전반적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 진솔하고 공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연구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창수

지도교수: 제주대학교 진관훈

※ 다음질문부터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V)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응답하는 사람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④ 기타()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사실혼	자 녀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기타(명) ⑤ 없음
월 소득	① 100~199만원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만원이상		

2. 기부 동의 의사표시 등으로 천원미만의 급여 우수리 금액을 기부하는 형식의 기부활동 하고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법정기부, 급여 우수리 기부, 연말 크리스마스철,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자의 동의에 의해 급여 수령시 자동 이체를 통한 기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3. 귀하의 기부활동은 자발적인 것 인가요

- ① 자발적. ② 비자발적

4. 귀하의 기부활동은 정기적인 것 인가요

- ① 정기적 기부활동 ② 비정기적인 기부활동

5. 귀하가 생각하는 기부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요

하 위 변 수	매우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기부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기부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돼야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기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베푸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기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의 사회적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기부는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다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나눠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기부문화는 한국 정서에 익숙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하 위 변 수	매우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
(2) 회사 분위기나 남들이 하는 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①	②	③	④	⑤
(3) 딱한 사정을 접하면 돕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려울수록 나눔을 실천해야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기부하는 단체를 선호해서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7) 봉사활동 등 체험을 통한 깨달음으로	①	②	③	④	⑤

7.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하 위 변 수	매 우 아 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현재 기부활동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①	②	③	④	⑤
(3) 기부매개체(단체, 조직 등)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4)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싫어서	①	②	③	④	⑤
(5) 기부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①	②	③	④	⑤
(6) 기부활동 참여 방법을 잘 몰라서	①	②	③	④	⑤
(7) 기부는 부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8) 가진자들이 대체로 기부를 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9)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는 어떤 형태의 기부인가요

- ① 물품기부 ② 재능기부 ③ 금전기부 ④ 기타:

9. 금전적 기부 이외 어떤 기부 형태를 선호하나요

하 위 변 수	매 우 아 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옷, 음식, 가전제품 등 물품기부	①	②	③	④	⑤
(2) 일정한 노동력을 통한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의 전문분야 제공하는 재능기부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10. 본인이 선호하는 기부대상은 어떠한가요

하 위 변 수	매우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국내 주변 불우이웃 개인 등 비공식적인 곳	①	②	③	④	⑤
(2) 해외구호활동 중심의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①	②	③	④	⑤
(3) 국내 종교관련 복지단체 구세군 등	①	②	③	④	⑤
(4)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통한 네이버 해피빈 등	①	②	③	④	⑤
(5) 국내 일반사회복지 재단인 아름다운재단 등	①	②	③	④	⑤

11. 정기적 기부와 비정기적 기부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 하나요

- ① 정기적 기부 ② 비정기적 기부

12. 본인의 선호하는 기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하 위 변 수	매우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잊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부 대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부담이 덜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부를 하고 싶은 기간에만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공직자 기부인식이나 기부활동의 확대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V)하시오

하 위 변 수	매우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복지시설 의무적 봉사 활동 정책상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비자발적 기부라 할지라도 회사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 필요	①	②	③	④	⑤
(4) 기부자에 대한 우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기부인식관련 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부터 기부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enhanced awareness of donations in public officials by researching the degree of awareness of donations in public officials in the Jeju region, who regularly or irregularly partake in donations for needy neighbors within the province by collecting change from their wages amounting to less than 1,000 won.

To achieve this, 368 public officials, such as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specific officials, and public servants in organizations (local police, fire station) belonging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dministrative city of Jeju and Seogwipo, or province,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self-reporting survey. A final number of 337 surveys, which exclude 31 samples that were insincere or unanswered, were examined on the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donations based on willingness, experience in donations, the regularity of donations. As a result, the answers with respect to experience in donations displayed that 318 (94.9%) 'currently partake in donations'.

Sex among the responders was distributed to 219 males (65%) and 118 females (35%), with ages in the order of 30's (47%) and 40's (32.1%). Furthermore, with respect to academic standards, 267 (80.2%) responders were university graduates, and the highest proportion of average monthly income was 2 million-2.99 million won (49.1%).

In summary of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donations based on measurement tool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played in the category 'donations mean sharing a portion of income regardless of

financial stability' ($t=2.308$, $p<.05$),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donations based on the willingness of donating. Furthermore, the responders had a higher awareness of voluntary donations ($M=3.50$) over non-voluntary donations ($M=3.47$).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donations based on regular donatio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played in the category 'I am interest in donating' ($t=5.357$, $p<.001$), and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responders who make regular donations ($M=3.66$) had a higher awareness in donations than responders who make irregular donations ($M=3.17$).

With respect to the motivation for making donations, 'pitiable situations urge me to want to help' ($M=3.85$) displayed the highest distribution.

In order to enhance the awareness of donations in public officials of the Jeju region, time and finan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the composition of an environment for voluntary donations and regular donation activities to be achieved and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towards donators, must be sufficiently supported.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ole and interest for enhanced awareness of donations in the public officials of the Jeju region.